

Autodesk 123D Design 주요 업데이트 안내

2014년 3월 출간된 『3D 프린팅을 위한 Autodesk 123D Design』에서 다루는 오토데스크 123D Design 소프트웨어의 주요 업데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오토데스크는 123D Design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6월에 주요 업데이트를 2회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책의 내용을 따라가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데이트 후 주요 변경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책의 내용은 v.1.3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4월에 v.1.4, 6월에 v.1.5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오토데스크 123D Design 웹 페이지에 공지된 업데이트 히스토리 전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Column

릴리즈 히스토리

[2014년 4월 21일 v.1.4]

-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23D 제품군에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킥캐드^{Tinkercad}와 비슷한 디자인^{look and feel}의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가 적용됩니다.
- 모델과 프로젝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과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한 앱 외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123D Catch, 123D Make, 123D Creature에서 만든 모델을 MyProjects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STL과 OBJ 포맷으로 메시 열기, 불러오기, 저장을 지원합니다.
- 메시와 솔리드 간의 결합^{Combine}, 빼기^{Subtract}, 교차^{Intersect}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퍼스트 바디^{first body} 읽기 전용 프린터를 지원하기 위해 STL 내보내기에 오브젝트를 조합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 SVG 파일을 불러와서 스케치로 쓰거나 간단한 돌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단히 키(F10)를 눌러서 선택한 오브젝트를 그리드에 드롭할 수 있습니다.
- 그리드를 감출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 부분 파트를 붙일 때(snap) 그룹을 유지하거나 푸는 토크 기능이 생겼습니다.
-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그리드의 스냅을 정의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 이제 3D Print를 누르면, 3D 인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메시믹서^{Meshmixer}로 모델을 보냅니다.

- 프리미엄 멤버는 123D Content Library에서 무제한으로 모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멤버는 한 달에 모델 10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복사해서 붙이는 기능을 안정화했습니다.
- 3dconnexion 장비를 지원합니다.
- **F1**을 누르면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 앱 안의 물음표 메뉴(도움) 아래에 피드백 항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123D 프리미엄 멤버를 위한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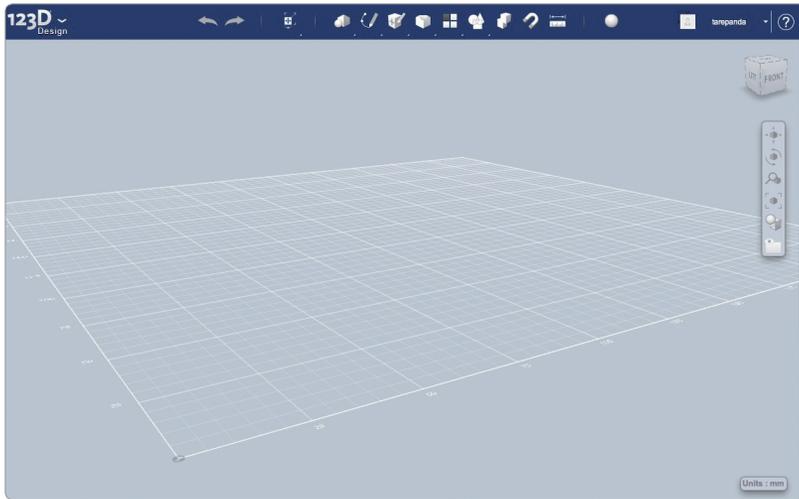
- 오프라인에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Text 명령어 메뉴가 생겼습니다.
- 텍스트로 수정^{edit}, 테두리 선 깨기^{explode}, 돌출^{extrude}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부분을 STL이나 123DX 파일로 내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선택한 부분을 메시믹서, 123D Make, 3D 인쇄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키보드 단축키가 지원됩니다.
-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업데이트에 따른 변화

v.1.3에서 v.1.4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튼의 위치나 하위 명령어의 변화는 적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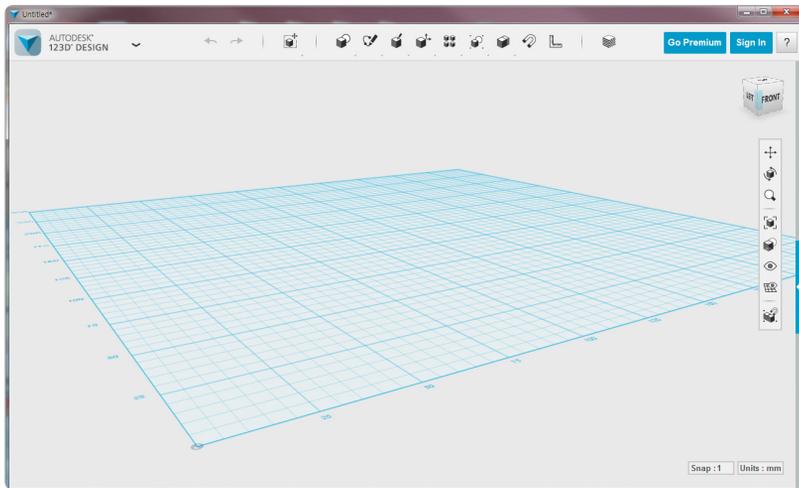
인터페이스 변경

변화가 가장 큰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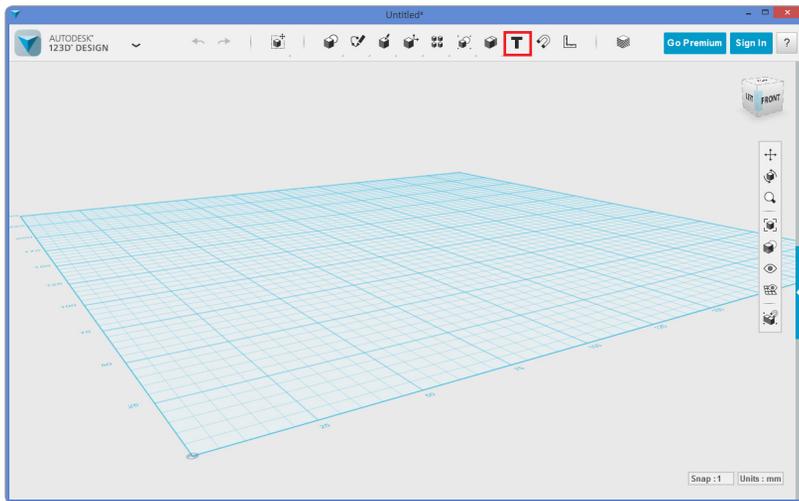
✦ v.1.3 인터페이스

책 내용에 반영된, 책 출간 당시의 인터페이스입니다.



✦ v.1.4 인터페이스

전체적으로 색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 v.1.5 인터페이스

상단에 새로운 메뉴(T)가 생겼습니다.

메뉴 변경

여기부터는 v.1.3과 현재 최신 버전인 v.1.5의 메뉴를 비교하면서 실제 적용 범위를 살펴봐도
록 하겠습니다.

상단 명령어 메뉴부터 시작해서 왼쪽의 프로그램 메뉴, 오른쪽의 표시 관련 메뉴, 그리고 하단
메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어 메뉴 변경



✧ v.1.3 명령어 메뉴

책 내용에 반영된, 책 출간 당시의 명령어 메뉴입니다.

명령어 메뉴별 기능은 115~12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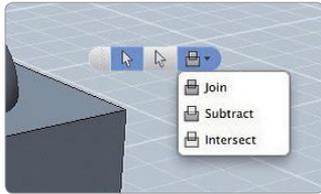


✧ v.1.5 명령어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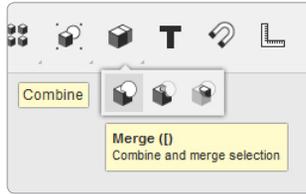
기존 버튼의 위치와 기능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서 아이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진 것과 새로운 메뉴(T)가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메뉴에는 두 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Combine 메뉴의 재구성, 그리고 Text 메뉴의 추가입니다.

Combine의 명령어 실행 시 나타나던 Join, Subtract, Intersect 하위 메뉴(본문 125페이지)가 명령어 메뉴에서 Combine의 하위 명령어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오브젝트에 적용 시 하위 메뉴 보임



✕ (변경 후) 메뉴에 하위 명령어가 생성됨, Join 메뉴가 Merge 명령어로 변경됨

그리고 Combine과 Snap 명령어 사이에 Text 명령어 메뉴가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1.5부터는 123D Design의 웹 앱 버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웹에서만 쓸 수 있었던 글씨 솔리드 만들기 기능을 데스크톱용 앱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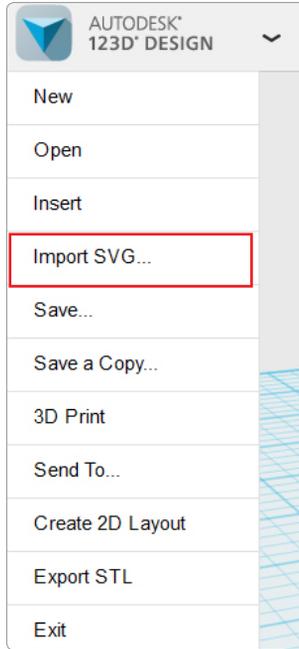
웹 버전으로 접속하는 대신, Text 명령어를 사용하면 책 216~217페이지에서 소개된 ‘웹 버전에서 글씨 솔리드 만들기’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뉴 변경

이제 왼쪽의 프로그램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 v.1.3 프로그램 메뉴



✕ v.1.5 프로그램 메뉴

프로그램 메뉴별 기능은 111~11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에, 기존의 메뉴는 기능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롭게 Insert와 Save 사이에 Import SVG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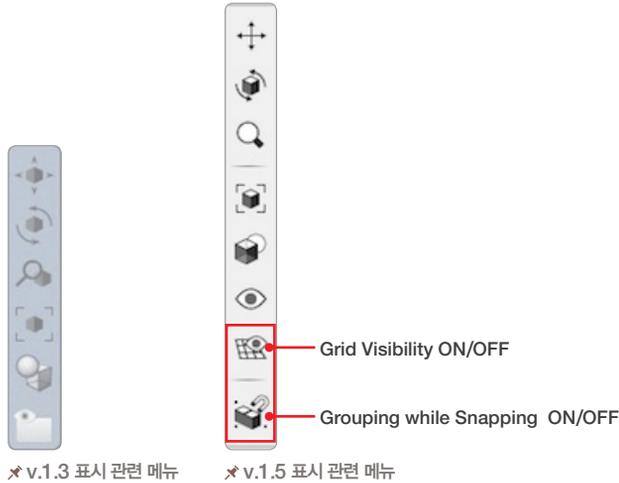


✕ 새로 추가된 Import SVG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면, SVG 파일을 가져와서 스케치나 솔리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관련 메뉴 변경

화면의 오른쪽으로 가서 표시 관련 메뉴를 봅시다.



표시 관련 메뉴별 기능은 128~13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하단에 새로운 메뉴가 2개 생겼습니다.

Grid Visibility ON/OFF와 Grouping while Snapping ON/OFF 메뉴인데요. 위의 메뉴는 화면에 그리드를 표시할지 온오프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이고, 아래의 메뉴는 Snap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해당 물체를 그룹으로 묶을지 묶지 않을지를 지정하는 메뉴입니다.

둘 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메뉴입니다.

단위 표시에 추가된 내용



그리고 하단에 단위를 표시하는 아이콘 왼쪽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리드에 물체가 자동으로 붙게 하는(Snap)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된 오토데스크의 123D Design 업데이트로 책 출간 당시의 내용과 현재 소프트웨어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로운 메뉴의 추가, 파일 활용도 확대 등의 변화도 있습니다. 다행히 기능적으로는 기존 버튼의 위치, 기능은 유지한 채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에 외관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에서 소개하는 위치에서 필요한 기능을 찾으실 수 있으며 책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성을 위한 업데이트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로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문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앞으로의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정보를 담아 다시 전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Make: Korea 편집팀